대한한의학 방제학회지 제20권 1호 THE KOREAN JOURNAL OF ORIENTAL MEDICAL PRESCRIPTION 20(1):81~87, 2012

魂魄의 관계에 대한 문헌적 考察

강석훈[1], 이진호[2], 강옥화[1], 권동렬[1]
[1]원광대학교 한약연구소·약학대학 한약학과, [2]원광대학교 한의학전문대학원 한약자원개발학과

ABSTRACT

Textual Research on Ethereal soul and Corporeal soul

Suk-Hoon Kang[1], Jin-Ho Lee[2], Ok-Hwa Kang[1], Dong-Yeul Kwon[1]
[1]Dept. of Oriental Pharmacy, College of Pharmacy, Wonkwang Oriental Medicines Research Institute, Won-Kwang University
[2]Dept. of Herbal Resources, Professional Graduate School of Oriental Medicine Won-Kwang University

Objectives : Ethereal soul and Corporeal soul are very important part of mental activities that have researched and studied not only by ancient medical scientists but also by philosophers and thinkers in historical literature.

Methods : There are some differences between ethereal soul and corporeal soul in terms of meaning, generative process, organs and the effects over the human body although they have been studied for a long time and have influenced on each other.

Results : The perception of ethereal soul and corporeal soul are considerably limited in Korean medicine compared to their contribution of biological activities.

The relationship of the positive and negative, yin and yang, is not even classified. So there is a general lack of understanding of ethereal soul and corporeal soul in oriental medicine course.

• 교신저자 : 권동렬
• 전북 익산시 신용동 344-2 원광대학교 한약학과 한약연구소
• Tel : 063-850-6802 Fax : 063-852-6802 E-mail : sssimi@wku.ac.kr
• 접수 : 2012/ 03/ 05 수정 : 2012/ 05/ 29 채택 : 2012/ 06/ 08

Conclusions : Therefore, this thesis is designed for discussing the origin and relation of ethereal soul and corporeal soul. Also it would be explained the effect in terms of sleeping that is related Ethereal soul and Corporeal soul.

Key word : Ethereal soul, Corporeal soul, Mental activities, The relationship of ethereal soul and corporeal soul

Ⅰ. 緖 論

魂魄은 無形之物로 神의 중요한 일부분으로 ≪內經≫에서부터 언급되기 시작하여 고대 의가들에 의해 연구 되었을 뿐 만 아니라 ≪左傳≫, ≪白虎通≫ 등 일반 역사 문헌에서 여러 사상가, 철학가들에게도 빈번하게 기재되어 있다. 이처럼 魂, 魄은 습관적으로 함께 쓰이면서 오랜 시간 동안 연구되고 언급 되었으며 不可分의 관계로 서로에게 영향을 주지만 의미, 생성 과정, 연관되어 있는 장기, 인체에 대한 영향 등이 다르기 때문에 그 둘로 인하여 발생하는 病은 症狀, 그에 따른 治法도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 淸代 唐容川이 ≪血證論≫에 "꿈은 魂魄이 부리는 것으로 꿈이 황홀히 보이는 것은 이런 이유이다. 魂으로 病이 생기면 여자, 화초, 신선, 기쁜 일의 꿈을 꾸고 酸棗仁湯으로 치료한다. 魄으로 病이 생기면 깜짝 놀라거나 괴물, 싸우는 일의 꿈을 꾸고 人蔘淸肺湯에 琥珀을 加하여 치료한다. 꿈 가운데 보이는 것이 바로 魂魄인데 魂은 좋고 魄은 나빠서 魂이 관여하는 꿈은 대부분 좋고 魄이 관여하는 꿈은 대부분 나쁘다. 그러나 魂魄을 주관하는 것은 神이기 때문에 神을 편하게 하는 것이 꿈을 꾸는 病을 치료하는 요점으로 益氣安神湯으로 치료한다"(夢乃魂魄役物, 恍有所見之故也. 魂爲病, 則夢女子, 花草, 神仙, 歡喜之事, 酸棗仁湯治之. 魄爲病, 則夢警怪, 鬼物, 爭鬪之事, 人蔘淸肺湯加琥珀治之. 夢中所見, 卽是魂魄, 魂善魄惡, 故魂夢多善, 魄夢多惡. 然魂魄之所主者, 神也. 故安神爲治夢要訣, 益氣安神湯治之.)[1] 라 기재하여 한의학에서 魂魄에 대한 깊이 있는 연구가 이루어져 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한의학 교과과정 중에는 魂魄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과 기능, 고대문헌 중 ≪內經≫, ≪類經≫에 수록된 간단한 내용을 소개해 놓았을 뿐[2,3] 위와 같은 심도 있는 내용은 찾아보기 힘들고 심지어 陰陽의 관계조차도 명확하게 구분 지어 놓지 않아 한의학을 공부하는 과정에서 魂, 魄에 대한 본질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그래서 필자는 역대 문헌과 의가들의 견해를 참고하여 魂과 魄의 본질, 魂과 魄의 관계 및 이들과 불가분의 관계가 있는 수면에 대한 영향을 서술하고자 한다.

Ⅱ. 본 론

1. 魂에 대한 認識

고대부터 민간에서는 魂을 강한 생기가 있는 陽의 성질을 지닌 無形之物로 여겼다. 고대 문헌 중 ≪說問解字≫에서 "魂은 陽氣이다"(魂, 陽氣也,)[4] 라 하였고, ≪左傳≫에서는 "사람이 태어나 변화가 시작되는 것을 魄이라 하고 바로 魄이 생

긴 후 陽氣가 몸에 붙어 생기는 것을 魂이라 부른다."(人生始化曰魄, 旣生魄, 陽曰魂)[5] 라 기재하였다. 그리고 ≪白虎通≫에서는 魂에 대해서 "魂은 흐른다는 것이다. 마치 소용돌이처럼 쉬지 않고 움직인다"(魂者沄也, 猶沄沄行不休也)[6] 라고 서술하였는데 위의 기록들로 보아 魂은 비교적 강한 운동성을 가진 陽의 물질로 묘사되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魂은 정신의식을 말하기도 한다. 어떤 의식을 거행할 때 혹은 물건이나 동물, 지역 등이 신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여 습관적으로 그러한 대상에 "魂" 이라는 단어를 함께 사용하였다.

이렇게 魂은 일반 사상들에게는 추상적이고 철학적인 대상이었고 서민들에게는 종교와 관련되어 있는 추앙받는 고차원적인 대상으로 이해되었던 것에 반해 한의학 의가들에게 魂은 이러한 의견들을 바탕으로 인체와 연관되어 각종 인체 활동에 참여하는 중요한 물질로 인식되어 아래와 같이 여러 관점에서 심도 있는 연구로 분석하여 나눌 수 있다.

1) 정신활동

민간에서 흔히 말하는 것처럼 魂을 인간의 정신활동, 정신의식 즉 神과 함께 연결하여 이해하였다. ≪靈樞≫에서 "陰陽 두 물질이 만나 생성된 생명의 근원을 精이라 이르고 兩精이 서로 만나 생기는 것을 神이라 말하며 神을 따라 움직이는 것을 魂이라 말한다"(故生之來謂之精, 兩精相搏謂之神, 隨神往來者謂之魂)[7] 라 하였다. 神은 五臟 중 陽中之陽인 心에 저장되어 사람의 정신의식을 지배하고 나아가 생명활동을 대변하는 대표적인 陽의 성질을 가지고 있다. 위 문구에서 魂은 일종의 비본능적이고 비교적 높은 정신활동을 말하고 神의 지배하에 그의 기능을 할 수 있음을 서술하였다. 또한 張景岳은 ≪類經≫에서 "魂이라는 것은 마치 꿈을 꾸는 것처럼 황홀하고 떠도는 곳이 급히 바뀌는 것이다"(魂之謂言, 如夢寐恍惚, 變幻游行之境是也)[8] 라 기술하여 魂과 정신의식, 특히 꿈과 관계가 있다고 규정하였다. 이 밖에 魂은 각 기관에서 받아 드린 정보를 바탕으로 이를 종합하여 판단, 명령을 실행하는 비교적 고도의 정신의식을 이행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음을 유추 할 수 있다.

2) 인체 장부와의 관계

魂과 肝을 연결시켜 인체와 魂이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증명하였다.

위에서 언급한 대로 魂은 쉬지 않고 움직이는 陽의 성질로 볼 수 있고 정신활동의 중요한 부분을 담당하고 있다. 肝은 五臟 중 가장 활동성이 강하여 "罷極之本", "將軍之官"이라 불리는 陽臟이고 정신활동의 물질 기초이고 魂의 거처가 되는 血을 저장하기 때문에 魂과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는 장기이다. 예를 들면 ≪素問≫에서 "肝藏魂"[9], ≪靈樞≫에서는 "肝藏血, 血舍魂"[10] 이라 기재 되어 있다.

이 밖에도 魂은 氣가 衰微하여 생기는 질병의 위험한 단계를 말하기도 하였다.

≪難經四十難≫에서 "두 번의 呼氣에 맥이 한 번 이르고 두 번의 吸氣에 맥이 한번 이른 것을 無魂이라 한다. 無魂은 죽는 것이다"(再呼一至, 再吸一至, 呼吸再至 名曰無魂. 無魂者, 當死也)[11]라 기술하였다. 無魂은 魂이 인체를 떠나 病이 위중한 상태를 말하는 것이다.

2. 魄에 대한 認識

魄은 ≪說問解字≫에 "魄은 陰神이다"(魄, 陰神也, 從鬼白聲)[4]라 기재되어 있고 ≪禮記≫에서는 "形에 붙는 靈은 魄이고 氣에 붙는 神은 魂이다"(附形之靈謂魄, 附氣之神謂魂也)[12] 라 하였으며 ≪淮南子≫에는 "地氣는 魄이다."(地氣爲魄)[13] 이라 기술하였다. 또한 ≪白虎通≫에서는 魄의 특성에 대해서"魄은 억압한다는 것이다. 마치 억압하는 것처럼 그렇게 사람에 붙어 있는 것이다."(魄者迫也, 猶迫迫然箸于人也)[6] 묘사하였다. 즉 魄은 形의 개념으로 이해하였고 움직임이 적고 사람의

몸을 떠나지 않으면서 생명활동에 참여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음을 유추할 수 있다. 위의 내용으로 볼 때 魄은 魂과 상대적인 의미로 陰의 성질을 지닌 無形之物임을 알 수 있다.

한의학에서 魄에 대한 관점은 대표적으로 ≪靈樞≫에 기록된"….더불어 精이 출입하는 것을 따르는 것은 魄이다"(幷精而出入者謂之魄)[14] 란 문구에서 찾아 볼 수 있다. 여기서 魄은 일종의 태어나면서 가지고 있는 본능적이고 상대적으로 낮은 정신활동을 묘사하였고 그의 활동은 陰의 물질인 精氣와 깊은 관계가 있으며 활동범위는 인체를 뜻한다고 볼 수 있다. 위의 내용으로 볼 때 한의학에서도 민간과 같이 魄을 陰의 성질로 인식함을 알 수 있다.

1) 정신 활동

한의학에서 인식하는 魄에 대한 다른 인식은 魂과 마찬가지로 五臟에서 담고 있는 정신의식 중 하나로 불리지만 확실한 정신의식 활동을 하는 魂과 비교 할 때 차이가 있다. 張景岳은 ≪類經≫에서 "魄은 인체를 움직이고 일을 하고 아프고 가려움을 느끼는 데 사용된다"(魄之爲用, 能動能作, 痛痒由之而覺也)[9]라 기술했고 또한 朱子의 말을 인용 하여 "魄이 충분하면 귀, 눈이 총명해지고 능히 기억할 수 있다"(魄盛則耳目聰明, 能記憶.)[9]라 하였다. 위의 기록들을 보면 魄은 고도의 정신의식을 대표하기보다는 보고, 듣고, 냄새를 맡고, 맛을 보고, 감각을 느끼는 본능적인 행위에 참여하여 이러한 외래 환경에 대한 정보를 기억 저장하는 작용을 한다.

2) 인체 장부와의 관계

魄의 五臟 중 肺와 관계는 ≪素問≫에 기술된 "肺藏魄"[15], ≪靈樞≫에 쓰여진 "肺藏氣, 氣舍魄"[16], ≪素問≫에 기재된 "肺者, 氣之本, 魄之處也."[17]에 잘 나타나 있다. 이 밖에 魄은 肺와 기능적인 면에서 연결되어 있고 문헌에 肺와 관련된 기관과 함께 기술되어 이 둘이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첫째 肺는 皮毛를 주관한다. 皮毛는 각종 감각을 느끼고 전달하는 작용을 한다. 魄은 위에서 언급한 것 같이 사람의 감각을 조절하는데 쓰이기 때문에 피모의 작용과 유사함이 있다. 둘째 ≪素問≫에 "魄汗"[14] 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說問解字≫에 기재된 대로 魄은 肺에 저장되어 있는 陰神을 말하는 것이고 汗은 陰液에서 생겨난 액체를 가리키는 것으로 이것은 肺經이 邪氣의 침습을 받았을 때 나오는 汗液을 말한다. 셋째 ≪素問五臟別論篇≫에 "魄門"[18]이라는 단어가 기재되어 있는데 이것은 肛門을 말하는 것이다. 肛門은 大腸 끝에 자리하고 있고 肺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魄門이라 불리기도 했다. 또한 魄은 糟와 같은 뜻으로 찌꺼기 라는 의미[19]가 있어 "찌꺼기"가 나가는 門 즉 肛門의 뜻으로 볼 수 있다.

3. 魂魄의 관계

위의 내용을 토대로 魂魄의 관계를 정리하면 아래와 같이 연관 지을 수 있다.

1) 心神과의 관계.

魂魄은 鬼에서 비롯된 無形之物로 사람의 영혼과 밀접한 관계가 있고 정신활동을 주관하는 神을 구성하며 서로 상생하고 제어하여 인체의 생명을 유지시켜 주기 때문에 습관상 함께 불린다. ≪左傳≫에 "心의 精이 편안한 것을 魂魄이라 말한다"(心之精爽, 是謂魂魄)[5]라 기재되어 있는데 이 문구는 魂魄과 心神의 관계를 설명한 것으로 心의 精이 충분할 때 神의 활동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이런 전제조건하에 나오는 것이 魂魄이라는 의미로 五臟 중 肝, 肺 외에 心과도 깊은 관계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나아가 인간의 정신활동에도 깊숙이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 陰陽의 상호대립, 상호의존 관계

魂魄의 관계를 음양대립과 의존으로 볼 수 있는데 이것은 張景岳의≪類經≫에 그 내용이 기술되어 있다. 그 의미를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魂神과 魄靈은 魂陽, 魂陰으로 불리고 魂은 動하고 魄은 靜하고 사람이 살아있을 때 魂은 魄을

신고 다니고 魄은 魂을 감시하고 사람의 생명이 유지될 때 서로 교류하고 사람이 죽게 되면 魂은 하늘로 흩어져 올라가고 魄은 땅에 묻혀 이 둘은 나뉘게 된다."(魂神而魄靈, 魂陽而魄陰, 魂動而魄靜. 生則魂載于魄, 而魄檢其魂; 死則魂游散而歸于天, 魄淪墜而歸于地)[20]

위의 내용으로 볼 때 비록 魂魄은 대립되는 성질을 가지고 있지만 인체의 생명이 끝나는 날까지 서로 교류 의존하면서 인체의 생명활동을 유지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3) 본능과 이성의 관계

魂魄은 각종 인체 활동에 참여하는데 그 중 가장 많이 관여하는 것은 정신활동이다. 일반적으로 魄은 신생아의 울음, 젖을 빠는 행동, 사지운동, 시각, 청각을 비롯한 각종 감각, 기억 등 비교적 낮은 정신활동 즉 본능적인 일에 관여하고 魂은 감정, 꿈, 형상화 등 비교적 높은 정신활동 즉 이성에 관여한다. 또한 陰은 거두어 드리고 저장하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魄은 여러 가지 감각을 기억하는 일을 담당하고 陽은 陰을 토대로 그 기능을 발휘하는 특징이 있으므로 魂은 魄에 기억된 정보를 바탕으로 활동하게 된다.

인체의 魂魄이 정상적인 상태이면 魄의 감각기능으로부터 오는 정보를 魂에서 영활하게 이용할 수 있고 魂의 표상화된 명령을 魄이 신속하게 이행하게 된다.

4. 魂魄의 生成과 수면에 대한 영향

魂魄의 생성에 대해서는 ≪靈樞≫[7] 에 기록되어 있는데 아래와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사람은 자연에서 하늘이 주는 德을 받고 땅이 주는 氣를 받는다. 天地間의 德과 氣가 서로 만나 陰陽이 합쳐져서 생명활동이 시작되고 생명의 근본인 精이 만들어진다. 陰陽의 精이 만나 "神"이 생겨난다. 이 후 정신활동을 하는 神을 따르는 魂이 생기고 육체인 精을 따르는 魄이 생긴다. 즉 육체의 생명이 생긴 후 陽中之陽인 神이 작용하여 魂이 생기고 陰中之陰인 精이 작용하여 魄이 생긴다."(天之在我者德也, 地之在我者氣也, 德流氣搏而生者也, 故生之來謂之精, 兩精相搏謂之神, 隨神往來者謂之魂, 幷精而出入者謂之魄)

이런 과정에서 생겨난 魂魄은 인체의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여 인체의 생리와 병리에 영향을 준다. 특히 정신활동에 많은 관여를 하게 되는데 그 중 가장 영향을 많이 끼치는 것을 수면이다.

수면장애로 생기는 질병 중 魂魄이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은 不眠과 多夢이다. 불면은 한의학에서 "不寐"라 불리는데 노인이 잠에 들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 논한 ≪難經四十六難≫(老人臥而不寐, 少壯寐而不寐者, 何也?)[20]에서 "不寐" 란 이름으로 처음 기재되었고 多夢은 ≪素問方盛衰論≫(少氣之厥, 令人妄夢, 其極至迷)[21]에서 "妄夢", ≪靈樞淫邪發夢≫(魂魄飛揚, 使人臥不得安而喜夢)[22]에서 "喜夢"으로 기재되었다.

수면의 기전은 神, 氣, 血과 관련이 있다. 낮에는 氣의 기운이 충만하여 血을 이끌고 表層을 순행하며 전신을 영양하고 神은 이와 함께 인체생명활동에 참가한다. 밤에는 血의 기운이 강해져서 氣를 거두어 드려 肝에 들어가고 氣와 神이 망행하지 못하도록 제어하며 감각기관의 기능을 둔하게 만들어 사람이 잠에 들게 한다. 하지만 여러 가지 원인으로 이러한 정상적인 생리현상이 파괴되어 神이 안정되지 못하면 陽神인 魂과 陰神인 魄이 균형을 잃게 된다. 먼저 魂이 과도한 경우 밤에 血에 머물지 않고 망행하게 되어 魄에 영향을 주어 꿈을 많아지거나 수면 중 돌아다니거나 잠을 이루지 못하는 현상이 발생한다. 반대로 魄이 과도한 경우 밤에 인체의 감각기관이 예민해지게 되어 쉬지 못하고 수집된 외부의 정보를 魂에 전달하여 그것에 대한 表象化가 계속되므로 잠을 이루지 못하게 된다.

III. 결 론

魂, 魄은 공통으로 鬼자가 들어가 있어 귀신, 망령에서 비롯되었다는 유사점이 있고 神의 일부로 사람의 정신의식에 영향을 주는 공통점이 있다. 魂, 魄은 서로 相生, 抑制함으로 균형을 유지하여 인체의 생명활동을 유지시켜 준다. 둘 사이는 이러한 공통점 외에 차이점이 있는데 아래와 같이 정리 할 수 있다(Table 1 참조).

Table 1. 魂, 魄의 차이점

	陰陽	形神	精神活動	居處	五臟	生成
魂	陽	氣	象徵的	血	肝	神
魄	陰	神	實質的	氣	肺	精

1. 陰陽으로 분류

魂魄을 陰陽으로 그 성질을 나누면 자유롭게 활발히 활동하는 魂은 陽에 속하고 인체를 떠나지 않고 지키는 魄은 陰에 속한다. 언어로 풀이를 해보면 고대 문헌에 魂은 鬼에 “돌아다닌다”는 뜻이 있는 云이 위에 쓰여 있어[1] 하늘을 떠돌아다니는 넋을 형용하기 때문에 陽에 속한다 할 수 있고 “생기를 잃다”는 뜻을 지닌 白이 붙어 있는 魄은 생명이 끊어진 후 육체를 떠나 땅으로 돌아가는 넋을 형용하여 陰에 속 한다 볼 수 있다.

2. 形神으로 분류

形神으로 그 둘을 분류하면 정신활동에 관여하여 자유롭게 돌아다니는 魂은 神에 속하고 신체활동에 주로 참여하여 그 안에 존재하는 魄은 形에 속한다.

3. 精神活動으로 분류

정신활동으로 이 둘을 생각하면 魂은 상징적이고 魄은 본질적이다. 즉 五覺(味), 平衡, 排泄 등과 같이 실질적인 정보를 수집하는 활동은 魄에서, 수집한 정보를 상징화 한 후 이를 바탕으로 판단하거나 행동에 대해 명령하는 것은 魂에서 담당한다.

4. 居處로 분류

이 둘이 머무는 곳으로 비교 해보면 魂은 血에 거처를 두고 魄은 氣에 머문다.

5. 五臟으로 분류

魂魄의 五臟과 연관성에서 비교하면 魂은 五臟 중 가장 활동적이고 血을 저장하는 肝과 연관성이 있고 魄은 전신의 氣를 조절하며 皮毛와 연결된 肺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6. 生成으로 분류

魂魄을 생성하는데 영향을 주는 물질을 살펴보면 魂은 陽의 성질을 가진 神이, 魄은 陰의 성질을 가진 精이 그 근간이 되어 생성된다.

지금까지 각 종 문헌과 여러 의가들의 기록을 바탕으로 魂魄에 대한 개인적인 견해를 서술하였다. 앞으로 魂魄이 인체에 생리, 병리적으로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생명활동을 유지시켜주는 기본 물질 즉 精, 神, 氣, 血, 津液 등과의 관계, 五臟과의 관계에 대해 심층적인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1. 唐容川. 明淸名醫全書大成 唐容川. 북경:중국중의약출판사. 1999:129.
2. 裵秉哲. 기초한의학. 경기:성보사. 2000:186.
3. 羅昌洙외 18인교수 공편저. 한의학총강. 서울:의성당. 2010:215.
4. 許愼撰, 殷玉裁注. 說文解字注. 서울:대성문화사. 1990:435 九篇上.
5. 남기현. 동양학총서(48) 춘추좌전(春秋左傳). vol

3. 경기:자유문고. 2003:648.
6. 신정근 한국학술재진흥재단/학술명저 번역총서/「동양편/061 백호통의(白虎通義)」. 서울:소명출판사. 2005:324.
7. 홍원식. 校勤直解黃帝內經靈樞. 서울:전통문화연구회. 2001:98.
8. 張景岳. 明淸名醫全書大成 類經. 북경:중국중의약출판사. 1999:45, 53.
9. 傳貞亮外9名. 黃帝內經素問析義. 은천:영하인민위생출판사. 1997:37.
10. 程士德主編. 內經講義. 상해:상해과학기술출판사. 1994:65.
11. 用耳朶學中醫系列叢書委員會主編. 難經. 북경:중국중의약출판사. 2010:9.
12. 이상옥. 명문동양고 전신완석예기 vol 2. 서울:명문당. 1987:40.
13. 김종수. 강독회남자. 서울:민속원. 2010:137.
14. 王洪圖主編. 內經. 북경:인민위생출판사. 2000:722, 428.
15. 高士宗. 黃帝內經素問直解. 북경:과학기술문헌출판사. 1980:172.
16. 南京中醫學院中醫系編著. 黃帝內經靈樞譯義. 상해:상해과학기술출판사. 1997:79.
17. 黃帝內經素問. 북경:인민위생출판사. 1998:67.
18. 李慶雨. 編注析解黃帝內經素問1. 서울:여강출판사. 1994:301.
19. 민중서림 편집국. 漢韓大字典. 경기:민중서림. 2004:23.
20. 權寧斗發行. 欽定四庫全書子部五醫家44類經. 서울:대성문화사. 1995:38, 485.
21. 王冰注. 黃帝內經素問. 서울:대성출판사. 1961:762.
22. 王冰注. 黃帝內經靈樞. 서울:대성출판사. 1961:165.